

제주섬 초록빛 생태 가치 실험예술로 품어 안는다

2019제주국제실험예술제 9-20일 탐나라공화국 등 공간 활용한 기발한 공연 워크숍·아트마켓 등 다양

제주섬의 생태 가치를 실험예술로 품는 공연이 잇따른다.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제주국제실험예술제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강우현·신진식)와 한국실험예술정신(KoPAS) 주최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제주탐나라공화국을 비롯 협재해변, 서귀포 문화벚대리충전소, 취다선 명상센터, 흥익제주호텔에서 잇따르는 2019 제주국제실험예술제(JIEAF)다. 실험예술가인 김백기 예술감독과 춘천 남이섬 신화를 만든 상상디자이너 이자 환경미술가 강우현 대표가 힘을 모은 이번 실험예술제의 주제는 '생태와 민회는 예술의 울림'이다. 예술적 행위를 통해 인류가 가진 지구 생태계



일본의 테메츠 도시.

파멸 가능성과 구원의 가능성 그 둘을 미학적 관점에서 도출하고 근원적 인간 삶의 방식에 대한 생태적 전환을 촉구하는 성찰의 장을 연다. 주 행사장인 탐나라공화국은 검은 현무암과 재활용품, 폐자재 등을 이용해 조성된 업사이클링 공간이다. 독일, 미국, 리투아니아, 호주,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30개국



실험예술제를 찾는 리투아니아의 '감각의 극장(Theatre of Senses)'.

80여 명의 작가들은 현무암과 빗물을 받아 만든 80여 개의 크고 작은 연못,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등을 소재로 기발한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작은 '제주 달팽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간사'로 첫날 오후 6시30분 공연된다. 10월 10-13일엔 국내외 작가들이 '자연과 공명하는 춤, 소리, 몸짓'을 주제로 드넓은 공간 곳곳에서 솔로, 듀엣, 콜라보레이션, 미디어 퍼포먼스 등을 펼친다. 풍어제에서 모티브를 얻은 실험미술 원로작가 이승택의 1969년 작품 '바람-민속놀이'를 패러디한 '생태놀이터-바람놀이'도 재현된다. 자연과 문명을 유기적으로 풀어낸 전시는 탐나라공화국, 흥익호텔, 서귀포문화벚대리충전소에서 진행된다. '연결하다(CONNECT)'를 주제로 한 춤명상, 댄스워크숍, 바디워크숍, 부도워크숍 등은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예코강연, 생태놀이터, 달팽이 캠페인, 아트마켓 등도 즐길거리다. 홈페이지(www.jieaf.com) 참고. 문의 064)738-5855.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그날, 문화로 꿈꾸는 상상이 현실로

대한민국 문화의 달 기념행사 이달 18-20일 제주시 원도심 중앙로~관덕정 구간 광장 변신 제주성지엔 미디어아트 설치 산지전은 수변 무대로 변모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홍보 이미지.

그날, 관덕정 앞마당은 차없는 거리가 되어 광장으로 변신한다. 제주도기념물 제주성지 주변엔 미디어아트 작품이 설치된다. 제주 관문 역할을 해온 제주항이 지척인 산지전은 실경을 품은 수변 무대로 바뀐다. 이달 18-20일 제주시 원도심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로 가면 상상이 문화를 만나 현실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시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운규)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념하는 자리다. 2003년부터 지역 문화 자생력을 꾀하기 위해 전국 순회로 치러지고 있는데 제주

행사는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18 평창 문화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등을 연출했던 김태욱씨가 총감독을 맡았다. 제주가 고향인 그는 어릴 적 누웠던 제주시 원도심 골목골목을 추억하며 곳곳에서 문화가 꽃피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기념식은 '제주에 뜬 문화의 달 맞이'란 이름으로 19일 오후 6시30분부터 김만덕기념관 주변 산지전 특설무대에서 마련된다. 제주에 머문 문화의 달빛을 따라가는 제주 문화의 여정을 한 편의 공연처럼 꾸밀 예정이다. 이때 올해 처음 지역문화 유공자 표창 수여도 이루어진다.

이튿날 오후 6시30분부터는 관덕정 앞 특설무대에서 제주 상징물을 차기 개최지 경기 파주시에 전달하는 행사 등이 진행된다. 추진위는 이날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중앙로 사거리~서문 사거리 전 차선을 통제해 관덕정 앞을 시민들이 무엇어든 할 수 있는 광장으로 개방한다. 3일 동안 제주성지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이남 작가, (주)닷밀의 미디어아트전 '시간의 벽'으로 빛 내린 도심 경관을 빛낸다. 칠성로 아케이드 상부 공간에는 제주 바람의 특성을 활용한 작품이 설치된다. 칠성로 상점가와 주변 유휴 점포엔 몸짓, 소리, 패션, 문학 등이 깃든다. 국립무용단 김미애, 영화감독 양윤호 등 제주출신 문화예술인의 이야기마당(19일 오후 4시 고씨주택), 지역 문화 대토론회(19일 오후 1시 산지전 갤러리), 카페·공방 등을 찾는 동네 음악회도 잇따른다. 제주대 미술학과 학생 등이 참여해 꾸민 아트버스는 이 기간 원도심을 달린다. 문화의 달과 연계한 축제와 공연은 10개에 이른다. 출연진은 물론 음향, 조명 등 최대한 제주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홈페이지(culturemoon.com) 참고. 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담한판

<17>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오맹이, "누님! 하르바님이 '흑룡이 펜안' 이령 혼 놀렐 불루난 잘도 듣기 좋습데다양. 나도 그초록 놀렐 불리점시민 쫓구다마슴. 난 어떠한 놀레를 못 흑염신고양?"
준네가 곤기름, "오맹이야- 경 곤지말라. 이 누님도 놀레 잘 불루카부텐 생각일랑 말라. 나사 좀테질이나 잘 흑여시민 막 좋다가. 이로후제 '흑룡이 펜안' 추록혼 놀레나 써잉 느신디 선세하마. 경 알양 이시라이-오맹이가 골맨, "누님! 놀레 짜잉 주켄 흑염수과? '흑룡이 펜안' 이령 혼 놀레 초록 혼 거마슴? 그초록 혼 놀레 닳은 거로 흑여슴서, 촛말 난 '흑룡이 펜안' 이령 혼 놀레가 넘어넘이 좋아마슴. 고맙수다양."

* 제주어 풀이

* "펜안" 이령 혼 놀렐 불루난 : "펜안" 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니.
* "놀렐 불리점시민 쫓구다마슴 : 노래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준네가 곤기름 : 준네가 말하기를, * "경 곤지말라 : 그렇게 말하지 마라.
* "놀레 잘 불루카부텐 :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줄.
* "이로후제(이루후제, 일로후제, 이루후제, 일주후제, 일후후제, '일후'의 본딴말) : <어찌>이후, 이후부터, 이 뒤로부터 어느 때.
* "짜잉 느신디 선세하마 : 써서 내게 선물할게, * "짜다(쓰다) : <음직>글씨를 쓰다.
* "오맹이가 골맨 : 요맹이가 말한다, * "고맙수다양 : 고마워요.

-부호- <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음직>음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름>대어름씨(대명사)/<검>검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도>도씨(조사)/<때>때씨(조사)/<의은말>의은말씨/<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 1991)

문화가 쫓지

서귀포관악단 태교 음악회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이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 보건소와 공동으로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앞두고 이달 5일 오전 11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최고 맘을 위한 태교음악회'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서귀포관악단원과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원이 출연해 알토색소폰, 하프 이중주, 클라리넷 솔로, 목관 앙상블, 성악 무대 등을 빛낸다. 입장료는 무료. 선착순 190명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문의 064)760-2494.

애기즙녀 토요일문화학교

민요패 소리맞이 '제주바당지킴이, 애기즙녀'라는 이름으로 2019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3기 초등학교를 모집하고 있다. 이달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토요일마다 합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숨비소리 불며 바다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짜여진다. '이어도사나' 부르기, 마임으로 해녀 물질 체험, 미니 소꿉이와 테왁 만들기, 한수풀 해녀학교 현장 학습, 낚시놀이, 발표회 등으로 꾸민다. 문의 064)721-4967.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휴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인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